

아빠는 지갑닫고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부광(46·광주시 북구 유동)씨는 경기침체로 거래업체들이 광고를 줄이면서 수입이 예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

또 지난해 목돈 마련을 꿈꾸며 시작했던 주식형 펀드마저 반 토막이 나면서 최근에는 가족끼리의 외식까지 그만뒀다. 서씨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유일한 재테크라는 생각에 담배는 물론 술도 줄이고 있다.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을 느낀 남성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자동차, 양복, 담배

등 남성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품목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1, 2월 신차 판매 대수는 총 16만1천21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나 줄었다. 신차 판매 저조는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월 광주시의 중고차 매매도 전년 동기 대비 15.2%나 줄었다. 광주시 중고차매매조합 관계자는 "신차 구입이 늘어야 중고차 시장에도 불량이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팔렸다고 내놓는 중고차

도 예년에 비해 15%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양복 등 남성복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양복이 -13%, 셔츠가 -11.5%씩 감소하는 등 남성패션 관련 상품 매출이 -5.3% 줄었다.

담배도 예외는 아니다. 보통 연초에는 금연 계획 때문에 담배 매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불황까지 겹쳐서 광주·전남에선 울 들어 지난해 1, 2월보다 4.4%가 덜 팔렸다.

소득 감소에 "한푼이라도 절약"... 남성용품 매출 ↓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금지하상가 '멋진 종합의류수선' 김미희 사장이 유행이 지난 청바지를 청치마로 바꾼 뒤 들여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불경기 극복 "가게지출 줄이자"... 리폼 매장 매출 ↑

주부 이은숙(38·광주시 광산구)씨는 최근 유행이 한 참 지난 재킷을 옷 수선 가게에 맡겨 고쳐 입었다. 불경기 여파로 가게수입이 줄면서, 새옷을 사입기보다는 디자인까지 통째로 고쳐 입는 주부들이 크게 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충금지하상가에 밀집한 의류수선가게의 경우 울 들어 주부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충금상가의 '멋진 종합의류수선'에는 디자인을 최신 유행에 맞게 완전히 고치는 의류 리폼(reform)의뢰가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재킷

은 길이뿐만 아니라 어깨라인, 품 등을 줄여 슬림하게 만들고 유행이 지난 청바지는 청치마로 수선해달라는 주문이 많다.

보통 신상품의 경우 여성 재킷은 20만 원 이상이지만 고치는 비용은 3만~4만 원대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멋진 종합의류수선" 김미희 사장은 "작년만해도 인근 상가에서 구입한 새옷의 길이를 줄여달라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장롱 속 옷을 가져와 최신 유행 스타일로 리폼해달라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 홈플러스 광주 계림점의 리폼 전문 업체 '에프씨엔에드'에도 의류 수선 의뢰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손수 리폼에 필요한 물품 판매도 호황이다. 온라인 소풍물 육선에 따르면 재봉틀 등 리폼 상품이 최근 12만5천개가 팔리는 1등 히트상품이 됐다. 육선 홍보팀 관계자는 "리폼 상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90%가량의 상승을 이루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엄마는 고쳐쓰고

근로소득 증가율 사실상 '제로'

금융위기 여파 환란이후 최저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나타내는 피용자 보수는 471조3천억원으로 전년(449조 원)보다 5.0% 증가하는데 그쳐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연간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3% 감소한 뒤

1999년 5.1%, 2000년 8.9%, 2001년 9.8%, 2002년 10.0% 등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그러나 2005년 7.3%, 2006년 6.0%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5%대로 내려갔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4.7%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 증가율은 사실상 0%대에 그친 셈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임금 인상을



역제한데다 고용 상황 역시 악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와인도 캔"

보해양조 2종 출시



보해양조 계열사인 보해B&F가 작년 연말 출시한 과일 맛 와인 '오렌지&망고', '자몽&구아바' 등 2종을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휴대하기 편리한 캔 제품으로 30일 선보였다.

두 제품은 열대 천연과즙에 화이트 와인을 블렌딩한 카테일 와인. 짧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오

렌지와 망고, 자몽과 구아바 등 두 가지 천연과즙을 원료로 사용해 맛이 상큼하고 부드럽다.

알코올 함유 5%, 용량은 205ml이다. 캔당 1천700원.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볼보 타 보세요

12일 광주 로드쇼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다음 달 12일 광주에서 볼보자동차 전 차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2009 전국 로드쇼' (2009 Volvo Driving Experience)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객이 직접 볼보자동차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고급세단 S80 Executive와 프리미엄 MUV(Multi Utility Vehicle) XC70 등 전 차종을 이번 행사에서 시승해 볼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시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 또는 대표전화 1588-1777.

/최재호기자 lion@kwangju

광산업진흥회장에 LG 이노텍 허영호 대표

LG 이노텍 허영호(57) 대표가 한국광산업진흥회 제 4대 회장으로 선 임될 예정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내달 3일 정기총회를 열어 허 대표를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할 뒤 곧바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사장은 이 자리에서 광산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광산업진흥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제주 출신인 허 사장은 LG전자 DVD 사업담당 전무이사, LG이노텍 부사장 등을 거쳐 현재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권 89,000원

박카두어 89,000원

죽두루어 89,000원

165,000원

064-744-1109

사무실 통신비 부담되지요?

- ▶ 무제한 50Mbps를 할당해 드려드립니다.
- ▶ 단말기 교체도 부담으로 지 않습니다.

1566-9927